

대중교통 이용 편리해진다

전주시, 12일부터 마을버스 정상 운행 ·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교통편의 제공

마을버스 정상 운행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전주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이 정상 운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감회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마을버스 도입 구간을 운행하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면서 발생된 잉여버스를 코로나19로 감회 운행된 노선에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해 노선 조정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상은 ▲5-2 ▲7-2 ▲104 ▲108 ▲165 ▲752 ▲970 등 7개로, 차량 추가 투입으로 배차 간격이 짧아지게 됐다.

여기에 전북대~서신동~만성지구~혁신도시~신시가지~효천지구~삼천동~평화동을 잇는 75번 노선이 신설돼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23 ▲424 ▲425 등 조촌·여의 구간 마을버스 투입으로 중단되는 15개 시내버스 노선이 ▲400 ▲420 ▲430번으로 통합 운행된다. 또 ▲472 ▲103 ▲102 등 11개 노선은 노선번호·경유지·기종점이 변경된다.

마을버스 '바로온'의 경우 교통카드 시스템 정비에 의해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무투로 이용되며, 시내버스 환승 시에는 시내버스 정상요금에 부과된다. 시스템 정비 후에는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 시에는 750원이 추가 징수된다.

마을버스 노선은 ▲교잔·신유강·

구분	노선번호	기점	종점	비고(환승거점)
통합	400	월드컵경기장	평화동종점	470, 479, 475번 통합
	420	월드컵경기장	평화동종점	423, 424, 425, 428번 통합
	430	백구, 용지	낙수정	429, 487번 통합
시내버스 노선 변경	472→410	혹석굴	춘감	노선번호 변경
	103-1	송천동종점	전주시당요장	
	103-2	전주시당요장	송천동종점	
	12→112	진조리종점	신덕마을	
	49→149	진조리	호동마을	
	102	송천동종점	전주시당요장	
	119	전주대학교	평화동종점	
	375	고려온천아파트	평화동종점	
	380	우석대학교	평화동종점	
	381	우석대학교	비전대학교	
	383	우석대학교	비전대학교	
	385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신설	75	전북대종점	
폐지	60, 109, 142, 416, 423, 424, 425, 428, 429, 470, 473, 474, 475, 479, 487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이 정상 운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감회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

덕동·흥개·청복·용신·신기·오신 마을 등 여의·조촌동 방면(8개 노선) ▲혁신·만성동 방면(2개 노선) ▲산재·금하 원산정마을 등 금압·인후·우이동 방면(3개 노선)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동 방면(1개 노선) ▲삼경사·고덕·내원당마을 등 동서학동 방면(4개 노선) 등이다.

시는 마을버스 정상 운행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

는 한편 연말까지 '마을버스 환승도우미'를 투입해 노선 안내와 짐 운반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중대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 '바로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노선을 적절하게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1회 청년독립 예술주간 '선' 전시회 개최

전주시, 19~26일까지 서노송예술촌 일원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결과물 소개

전주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전주, 청년 예술시점'에 참여한 16팀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선보이는 '제1회 청년 독립 예술주간 '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조각, 일러스트레이션, 한국무용, 비보이, 문학, 영화, 국악 분야 개인작품 9개와 미술, 문학, 음악이 융합됐거나 클래식, 국악, 브라스밴드 등이 합쳐진 2개의 콜라보 작품이 소개된다.

시는 작품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예술인 토크, 전시 도슨트 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 수를 제한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전주, 청년예술시점'에 참여한 16팀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선보이는 제1회 청년독립 예술주간 '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예술인 16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르별 멘토링,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에게는 예술 향유에 대한 감동을 해소해주

고,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와 경험을 지원해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향후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년~2023년까지 총 4억8000만원 투입... 도시농업 일자리 관련 구심점 역할 수행

최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도시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사 등 도시농업 일자리를 발굴·지원할 거점 기관을 구축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최근 전북도의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을 따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시농업 일자리 관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청년, 은퇴자의 농업 진입을 도와 침체된 농업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농업 분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이다.

센터는 내년에 ▲농촌 인력양성 등 도농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스마트 육묘장 설치 및 운영 ▲도시 텃밭 프로그램 운영 ▲농업 인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열린 부엌' 프로그램 운영 ▲빈집 등 도시 재생 공간 내 소형 식물재배기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시농업 일자리 관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연내 구성하고, 도시농업관리사와 텃밭관리사, 농촌체험농장 매니저, 치유농업사, 귀농귀촌 멘토 등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양병욱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장은 "그간 갖고 있던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특색 있고

전문화된 도시농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의 영역이 여가와 먹거리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복지, 도시재생과 연계돼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도시농업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 분야 활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상생발전기업 3곳 · 우수향토기업 4곳 선정

전주시는 지역민 고용과 지역물품 구입에 앞장서는 상생발전기업 3곳과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우수향토기업 4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발전기업의 경우 전주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30억 원,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건설·서비스 분야 기업 가운데 ▲(주)테크카본 ▲(주)준진설 ▲대자인병원 등 3곳이 선정됐다. 이 3곳의 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물론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기부 등의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향토기업으로는 10년 이상 전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주)올릭스 ▲동서컨트롤(주) ▲(주)하이엠시 ▲(유)맛디자인 등 4곳이 뽑혔다.

시는 7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상생발전기업 3곳에는

경영개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하기로 했다. 또 우수향토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유)삼신기업 등 23개 업체를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 지원해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